

## 제놀루션, 서린바이오사이언스와 핵산 추출 플랫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핵산 추출 플랫폼 국내 물품 공급계약을 통한 국내 판매 확대 기대
- ▶ 코로나 변이 유전자 NGS 검사법 개발 완료 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 기대

<2021-07-27>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제놀루션(225220, 김기욱 대표이사)이 국내 바이오 인프라 전문기업인 서린바이오사이언스(038070, 황을문, 강미옥 대표이사)와 핵산 추출 플랫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핵산 추출 플랫폼의 국내 물품공급 계약으로 서린바이오사이언스가 확보한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제놀루션의 핵산 추출 플랫폼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향후 코로나 변이유전자 NGS 분석 업무 협업을 진행해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사업을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서린바이오사이언스는 치매조기진단키트 개발사업, 헬스케어, 위생과 살균 솔루션 사업 등 40여 년간 분자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 인프라 전문기업이다.

제놀루션은 이번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핵산 추출 플랫폼의 국내 판매량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현재 개발중인 코로나 변이 유전자의 NGS 검사법과 자동화 장비를 연계한 공정개발이 완료되면 서린바이오사이언스와 협업을 통해 국내외로 플랫폼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놀루션 관계자는 "이번 전략적 업무협약으로 국내 유통망 확대를 통한 시장점유율 상승과 국내 매출액 확대뿐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솔루션 개발 완료를 통해 국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첨부] 물품 공급계약 & NGS 분석 업무 협약식

